

用神

MANUAL 2023

제1강 용신론의 쟁점 ①

억부용신 조후용신 격국용신

“명을 본다는 것은 용신을 보는 것일 뿐이다.”

- 진소암 <명리약언>

“용신은 명리의 핵심이다.”

- 서낙오 <자평수언>

격국용신 억부용신 조후용신

전왕용신 병약용신 통관용신

용신의 본질

용신론의 역사적 변천

4길신과 4흉신 그리고 순용과 역용 상신(相神) <자평진전>

“월령에서 이미 용신을 얻었다면 다른 자리에 반드시 상신이 있다.
군주에게 재상이 있는 것처럼 나의 용신을 보좌하는 것이 상신이다.
무릇 모든 격국의 격이 이 한 글자에 힘입어 성격이 되는 것은
모두 이 상신 한 글자 때문이다.”

상신에서 억부 <명리약언> <적천수천미>

조후 병약 통관의 등장 <자평수언>

격국의 등장

- <명통부> : 월지의 중요성과 격국 개념
- <연해자평> : 격국의 발전 (내격과 외격)
- <삼명통회> <명리정종> : 격국의 확장
- <난강망(궁통보감)> : 조후용신 강조
- <명리약언> : 격국과 억부용신의 구체화
- <자평진전> : 4길신과 4흉신 순용과 역용
- <적천수천미> : 억부용신과 종격
- <자평수언> : 용신법의 분류와 종합

격(格)

-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
- 월령의 힘을 받은 천간이 사주 전체에 미치는 가치 혹은 천성과 성격을 의미
 - 통상 10격

국(局)

- 지지 회합의 상태

격국 용신

- 정해진 격국을 생부(生扶)와 극제(剋制)를 통해 성격(成格)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

<연해자평> <삼명통회>

격국 자체를 용신으로 지정

<자평진전>

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만 구함 (상신의 개념)

- **변격 : 투출된 오행으로 격을 삼는 것**
예) 인월 갑목에 병화(무토) 투간 - 변화하여 선해지지 않으면 파격
- **겸격 : 합하여 유정하면 길하고 무정하면 불길**
- **성격이 되더라도 형충파해가 있으면 파격**

<명리약언>

- 투출한 길신을 부조하고 투출한 흉신은 억제하거나 인화해야 한다
 - 본기가 투출하지 않고 극을 당하면 여기와 중기를 쓴다
- 장간의 오행이 투출없이 극을 당하면 월지 대신 다른 왕성한 세력을 격으로 삼음
 - 비겁은 간지 무논하고 격을 취하지 않고 일간의 보조로 삼는다

격국의 귀천

- 명은 몸이고 용은 정신

- 생부와 극제에 따라 (유무정에 따라) 상하가 나누어짐

예) 식신격은 생부해야하고 상관격은 극제 혹은 화해야 성격이 되며
생부와 극제 해주는 상신이 현대적 개념의 용신

<삼명통회>에서의 격국 정의 팔격(八格)과 십격(十格)

정관격	편관격
정재격	편재격
정인격	편인격
상관격	식신격

건록격
양인격

정관격의 설명

특징

- 충신과 존중의 명칭이며 나라와 가정을 다스리는 호칭
- 세의 운이 관인의 본토로 가는 것은 일상적으로 늘 관청의 일에 어려움을 초래

오행별 설명

- 금관 :** 지위 높고 청렴하여 형벌과 금전 관장
판단이 빠르고 총명한 것을 주관
- 목관 :** 인품이 맑고 높음
속세와 화합하고 신중함을 지키는 것을 주관
- 화관 :** 관직의 서열이 현저히 높으며 성장이 맹렬
형벌을 참혹하는 것을 주관하며 일과 휴식이 일정치 않음
- 수관 :** 관직이 낮으나 서열이 오를수록 겸손하여 사람을 모음 고
아와 독신을 긍휼히 여기며 도의 본성을 주관
- 토관 :** 서열 안정되어 침범이 어렵고 성품이 중후하고 곧음 법령
을 명백히 지키는 것을 주관

성격(成格)

격을 이루는 것

- 월지 정관 천간 투출 (오로지 일위)
- 일주 강건 왕성
- 재와 인이 양쪽에서 밀어주고 끌어줌
- 상관과 칠살을 보지 않음
- 오행이 온화하고 순수해야 정관으로 논할 가치

파격(破格)

격을 깨트리는 것

- 파극, 형, 충, 파, 해를 만나거나 겁재를 만나는 것
- 상관이 공격하는 것
- 운을 행하는 데 재성을 보지 않고 비겁을 만나는 것
- 혼잡되어 순수함을 해치는 것 (살의 합함을 귀하게 여김)
- 정관이 합거하는 것

정관이 기뻐하는 것

-재가 생하고 인을 만나는 것

“인성이 없는 관성이 있지만 맑고 뛰어난 명성을 찾기 어려우며
관성이 없는 인성이 있지만 능력을 발휘하는 데 신속하지 않다.”

“가장 귀한 것은 관성이 명이고 일과 시가 편재와 정재를 얻는 것.”

-재와 인이 합당한 자리에 있을 것

정관이 꺼리는 것

-칠살의 운으로 흐르는 것

-묘지의 운으로 흐르는 것(가령 갑이 정관인데 미의 운)

-정관을 거듭 보는 것